

“역사가가 지켜야 할 큰 원칙은
역사의 정통성과 계통을 밝히고,
찬적篡賊을 엄하게 다스리고,
충절을 드러내 주고,
옳고 그름의 기준을 바로잡고,
전장典章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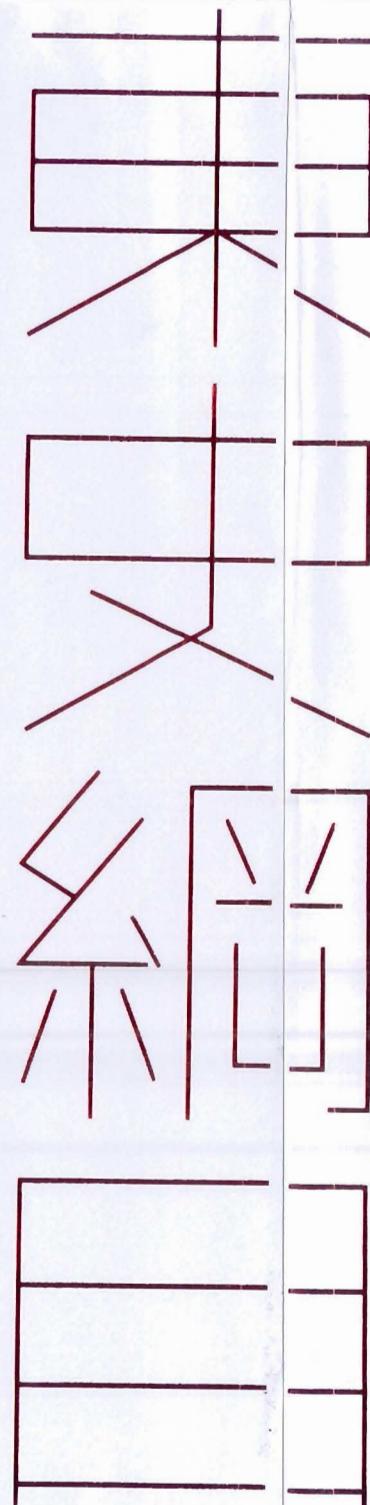
『동사강목』이라고 했을 때, ‘동사東史’는 ‘동쪽 나라의 역사’를 말합니다.
중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‘동국東國’이라고
부른 데서 붙여진 이름이지요.

‘강목綱目’의 강綱은 벼리, 목目은 눈을 말합니다. 벼리는 그물의 중심을
잡아 주는 줄 또는 지지대를 가리키며, 눈은 그물눈을 말합니다. 그물눈
은 벼리를 중심으로 짜이게 됩니다. 강목체는 역사를 서술할 때, 중요 사
건의 요지를 제시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그 아래 달아 주는 방식입니다.

우리 가까이엔 언제나 불러올 수 있는 역사 속의 홀륭한 선 배가 참 많이
있습니다.

값 12,000원

4 3 9 0 0
9 788928 403370
ISBN 978-89-284-0337-0



조선 역사학의 저력

순암 안정복의 동사강목

오항녕 지음